

#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

2021년 11월 28-30일 대한민국 서울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25주년 기념 및 협동조합 정체성을 주제로 한 제 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2021년 12월 1-3일) 사전행사

## 일정변경 및 요약문 / 패널세션 제안 모집 재공고 안내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제 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2021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사전 행사인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와 제 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은 각각 2021년 11월 28-30일과 11월 29-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들  
학술행사는 세계협동조합대회의 토론에 학술적이고 분석적인 기여할 수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요약문 및 패널세션 제안을 다시 모집하고자 하며, 제출기한은 2021년 4월 5일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재공고를 참조하기 바라며,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 관련 문의는  
[research.congress@worldcooperativecongress.coop](mailto:research.congress@worldcooperativecongress.coop) 으로, 제 3차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 관련 문의는 [lawforum@worldcooperativecongress.coop](mailto:lawforum@worldcooperativecongress.coop)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제 33차 ICA 세계협동조합대회

2020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설립 125주년 및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지만, 동시에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고통을 어려움을 겪은 해였습니다. 그 결과로 제 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2021년 12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팬데믹의 전개



상황과 의료적 해법이 진전되는 추이를 고려하여, 2020 년 하반기에 ICA 이사회가 취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협동조합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과 전세계 협동조합의 심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널리 알리고 심화시키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협동조합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어 낼 것인가?
- 협동조합 방식의 비즈니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 경로를 만들어내는가?
-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위기에 맞서 협동조합은 어떻게 회복력과 혁신을 보여주며, 지역사회를 지켜내는가?

협동조합대회는 기후위기, 지속가능발전, 갈등 및 폭력,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성평등 및 일의 미래와 같은 단호한 해답을 요구하는 현재의 전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협동조합 정체성이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성과, 시장내 영향, 좋은 거버넌스와 경영 기법, 협동조합 자본의 특별한 성격 등 협동조합 정체성이 가져다 주는 경쟁력도 논의될 것입니다.

###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란?

국제협동조합연맹에 의해 개최되는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특별한 계기에만 개최됩니다. 대표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895 년 제 1 차 대회),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채택 (1995 년 제 31 차 대회), UN 협동조합의 해 기념 (2012 년 제 32 차 대회)

협동조합대회는 ICA 회원조직의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협동조합인들의 회합입니다. 2020 년 12 월로 계획되었다가 2021 년 3 월 1-3 일로 일정이 변경되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릴 제 33 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유럽 외부에서 개최되는 두번째 협동조합대회이며, 협동조합 정체성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입니다.

제 33 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icaworldcooperativecongress.coop](http://www.icaworldcooperativecongress.coop)

## 협동조합 학술대회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는 2021 년 11 월 28-30 일에 걸쳐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사전행사로써 국제협동조합연맹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는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학술적이고 분석적인 토론을 통해 협동조합대회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요약문 및 패널세션 제안

2020년에 진행된 요약문 및 패널세션 제안 모집에 이미 참가한 연구자들 관련 안내.

2020년 진행된 제안 공모에 요약문과 패널세션 제안을 제출해주신 연구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정결과에 기반하여 2021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 아래 부분에서 안내할 학술대회 등록비와 참가 방법에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는 ICA 웹사이트와 협동조합대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라는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주제에 관련된 주제들을 탐색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이에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 연구자, 전문가 및 협동조합인들에게 제 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컨셉노트에서(아래 첨부) 정의되고 아래 “학술대회 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주제 중 하나에 관련된 연구에 대한 **개별 요약문 (영어 750 단어 분량 또는 한글 A4 한 장 이내) 또는 패널세션 제안문 (참가자 이름 및 소속 포함)** 제출을 제안드립니다.

**첨부양식**을 사용하여 요약문 및 패널세션 제안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목, 저자, 소속
- 다루고자 하는 주제 (아래 “학술대회 주제” 참조). 소주제를 명기해도 좋습니다.
- 협동조합 정체성 관련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 논거 및 메세지. 3-5개 키워드
- 왜 제출된 내용이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

심사와 선정은 이론적, 분석적, 개념적 및 경험적 토대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유력한 논거를 동원하면서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제안된 요약문과 패널 세션이 갖는 잠재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진 연구자 (학생 또는 학위 후 2년 이내의 신진 연구자)들의 참여를 각별히 권합니다.

선정된 요약문의 저자들은 영문 5000-7000 단어 분량(한글의 경우, A4 15-20장)의 논문 또는 필요한 경우, 영문 2000-3000 단어 분량(한글의 경우, A4 7-10장)의 발전된 요약문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들은 협동조합대회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논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학술위원회와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재공고에 따른 요약문 및 패널세션 제안 제출은 2021년 4월 5일까지 입니다. 선정된 저자들의 최종 원고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제출될 것입니다.

## 학술대회 주제

### 1. 협동조합 정체성

조합원 증가, 시장 확장 및 사회적 임팩트를 위해 협동조합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기회는 무엇인가?

- 거버넌스 및 조합원 참여
- 협동조합 브랜딩
-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
-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정체성
-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 다양성, 공정성 및 포용성
- 명확하게 이 주제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소주제들

### 2. 협동조합 혁신 및 협동조합 기업가정신

혁신과 특별한 비즈니스 기회의 토대로서 협동조합 정체성.

-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 디지털 전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윤리적 가치사슬 경영
- 강력한 협동조합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 자본: 미래 자본수요 충족
- 명확하게 이 주제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소주제들

### 3. 협동조합의 글로벌 기여

기후위기, 갈등 및 불평등과 같은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할

- 코로나 19 를 포함한 보건위기 및 이민 등과 같은 전지구적 위기
-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 적극적 평화, 자연재해 극복 및 사회경제적 통합
- 협동조합 국제개발협력
- 명확하게 이 주제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소주제들

### 4. 협동조합 정체성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달성의 촉진자로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정체성의 역할

- 일과 삶의 미래
- 보건 및 사회서비스
- 식량 안보
- 에너지 및 주거



- e. 명확하게 이 주제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소주제들

## 등록비 및 참가방법

학술대회는 인터넷을 통한 참가와 서울 현장 참가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등록비는 아래와 같으며, 학술대회와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에 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 현장 참가

- 상위소득 국가 (한국 포함) 출신 - 250 유로
- 중위소득 국가 출신 - 125 유로
- 하위소득 국가 - 무료
- 신진 연구자 - 무료
- 세계협동조합대회 등록 참가자 - 무료

### 온라인 참가

- 상위소득 국가 (한국 포함) 출신 발제자 - 75 유로
- 중위소득 국가 출신 발제자 - 35 유로
- 하위소득 국가 출신 발제자 - 무료
- 신진연구자 발제자 - 무료
- 발제자가 아닌 참가자 - 무료

### 비고

- 소득에 따른 국가 분류 현황은 [세계은행의 2020년 세계발전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의 국가는 거주지, 근무지, 소속 대학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 등록비에는 학술대회 학술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발표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 주요 일정

요약문 제출: 2021년 4월 5일까지

요약문 선정 공지: 2021년 5월 5일

최종 원고 제출: 2021년 7월 31일까지

요약문 및 논문 편집 (2020년 12월 15일 - 2021년 1월 31일)

모든 요약문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4개 국어로 번역되어 학술대회 자료집에 실립니다. 논문은 협동조합대회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 올려집니다.



## Call for Abstracts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

## 학술대회 이후 활동 (2022년 5월 31일까지)

학술대회 이후, 저자들은 자신들의 논문을 재검토 후 국제협동조합연맹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논문은 저자의 동의와 학술지 편집진의 결정에 따라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 자료집, the *Review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및 다른 학술지 등에 수록될 수 있습니다.

## 언어

요약문과 논문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제출양식

제출양식을 사용하여 요약문 또는 패널세션 제안문을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search.congress@worldcoopcongress.coop](mailto:research.congress@worldcoopcongress.coop)

메일제목에 영문으로 요약문의 경우, “LAST NAME-World Coop Congress 125 Years ICA-Theme 번호”를, 패널세션 제안문의 경우, “LAST NAME-World Coop Congress 125 Years ICA Panel-Theme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 연구자 (학생 또는 학위취득 후 2년 이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메일제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LAST NAME - YS-World Coop Congress 125 Years ICA- Theme 번호”

## 추가 정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research.congress@worldcooperativecongress.coop](mailto:research.congress@worldcooperativecongress.coop)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요약문 선정 및 논문 발전 과정을 감수할 것입니다. 학술위원회는 ICA 협동조합 학술위원회와 한국협동조합학회를 대표하는 두 명의 공동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술위원회는 영어, 스페인어, 불어, 한국어의 4개 공식언어를 고려하여 요약문 선정 및 논문 발전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Call for Abstracts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

### 공동위원장:

- 소냐 노브코비치, 세인트 메리 대학 소베이 비즈니스 스쿨, 캐나다
- 김정주, (전) 건국대학교, 대한민국

### 위원:

- 에스더 기세루, 케냐 협동조합 대학, 케냐
- 미르타 부오토,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 아르헨티나
- 클라우디아 산체스 바호,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 아르헨티나
- 다비 무라 코스타, 상파울로 대학, 브라질
- 제시카 고든 넴브하드, 뉴욕 시립대학, 미국
- 아키라 쿠리모토, 호세이 대학, 일본
- 모리스 알트만, 던디 대학 비즈니스 스쿨, 영국
- 과란조티, 농업협동조합훈련기관, 인도
- 신시아 지아뇨카보, 알메리아 대학, 스페인
- 콘스탄틴 일리오풀로스, 농업경제연구소, 그리스
- 파올라 라페엘리,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덴마크
- 끌로드 앙드레 기요트, 세부룩 대학, 캐나다
- 마틸린 필리피, 보르도 대학, 프랑스
- 루 하몬드 케틸슨, 사스케치완 대학, 캐나다
- 로저 스피어, 오픈 대학, 영국
- 구정옥, 서울여자대학교, 대한민국
- 김형미, 상지대학교, 대한민국
- 박성재, GSNI 인스티튜트, 대한민국
- 송재일, 명지대학교, 대한민국
- 이상윤, 성공회대학교, 대한민국
-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대한민국



[별첨자료 - 컨셉노트]

제 33 차 세계협동조합대회, 2021 년 12 월 1-3 일 대한민국 서울

## 협동조합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다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25 주년 및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 주년 기념

기후변화에 맞서는 운동, 청년 및 여성들의 운동, 그리고 유엔 아젠다 2030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정의한 환경,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 나아가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 최근 발생하는 현상들의 핵심에는 사회적, 경제적 대전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들은 변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협동조합 정체성(cooperative identity)은 협동조합이 자본과 이윤보다 사람과 공공선에 복무하는 기업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와 기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협동조합 운동은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전환시키고 있는가? 협동조합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가?

오늘날 협동조합들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협동조합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분모를 마련해오지 않았다면, 또한 이러한 공통분모가 1995 년 체계적인 공통의 정체성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협동조합들은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95 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 창립 100 주년 기념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는 협동조합 운동 내부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에는 협동조합 원칙의 일곱 번째 원칙, 협동조합의 기본가치와 정의 등을 통해 전 세계 협동조합들의 공통분모가 이전보다 온전하게 반영되었으며, 여기서 도출된 다양한 기준과 함께 ‘협동조합 정체성’ 개념이 명시적으로 도입되면서 중대한 질적 도약이 이루어졌다.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25 년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협동조합 운동 내부에서 2 년간 논의를 거쳐 2015 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협동조합 원칙 안내(Guidance Notes on the Cooperative Principles)’는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협동조합 운동은 공통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이후 새롭게 나타난 협동조합 유형 등 여러 협동조합들의 다원성을 이전보다 잘 포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인정도 이루어졌다. 2002 년 국제노동기구가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제 193 호)를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협동조합 정체성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2016 년 유네스코는 독일 협동조합 운동의 신청을 받아들여 협동조합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가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문제를 겪는 지금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서울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기념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25 년간 협동조합 정체성이 발전해온 과정을 돌아보는 성찰의 장이자, 협동조합 정체성 개념이 협동조합 모델과 여타 기업 유형 및 집단행동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욱 깊이,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토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의 기업들은 자신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 관행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와 사회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방식도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B 코퍼레이션, 사회적기업, 가치금융(Banking on Values)과 같이 윤리적 가치와 공공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영자원탁회의(Business Roundtable) 조차도 기업은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선언한 바 있다(기업들의 행태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지만).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이 개발, 환경, 평화 등 오늘날 지구적 문제들과 겹치는 일자리, 디지털 기술의 영향, 성평등 등 인간발전의 전반적 관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토론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협동조합대회의 토론은 협동조합이 지구적 문제와 인간발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선 과제들에 대한 “행동 계획”을 포함할 것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 부문 조직들은 회원조직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시킨 해당 부문에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할 것이다. 이 제안들은 서울 세계협동조합대회 선언에 포함되고, 국제협동조합연맹 2020-2030 전략계획을 통해 그 실천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